

New England 단풍선박여행

(2018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 까지)

이성길 (71년)

71년졸업생 9명이 부부동반으로 뉴잉글랜드 선박여행에 나섰다. 강유구부부는 필라델피아에서 오고, 김성환, 김일영, 이원택, 장문석, 이창우부부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조병선은 버지니아에서, 이성길, 강태수는 미시간에서. 모두들 뉴욕에서 만나서 Regal Princess Cruise Ship에 올라타고, 우리 옛날 젊은 시절로 돌아갔고 18명이 처음 내린데는 보스톤이었다.





유명한 퀸마켓은 우리 남대문시장처럼 크고, 한 골목에서는 중국여대생이 바이올린을 치며
강충거렸고, 지나가는사람들이 흥겨워서 미소를 짓고 푸짐하게 돈을 뿌려주곤 했다. 이어서
방커힐모뉴먼트를 보로 반시간 걸려서 걸어갔다. 여긴 1775 년에 농군으로 조직된
미애국자군인들이 보스톤항구를 바라보는 언덕을 점령했고, 거지때같은 오합지졸들이라고
영국군인들은 이때까지 깔보았는데 이제 애국자군인이자 농군들이 무기를들고 여기를 점령하니
그당시 사령관인 하우이 장군은 이 언덕을 빼앗으려고 빨간 제복을 입은 영국 군인들을 이
언덕으로 보내고, 드디어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예언하는 전쟁이 시작된다.

싸움이라고 하지만 영국 정예부대가 농군과 싸우니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하우이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 이 승리는 “영국군인이 너무나 많은 죽은 승리입니다” 했는데, 미 애국자는 180 명이 죽었지만 영국군인은 1,800 이 죽었다. 결국 영국은 헬리팩스로 모든 군함과 군인들을 후퇴하고, 미국독립전쟁은 농군들이 자유를 부르짖으며 미국이 영국을 항복시키는 거룩한 투쟁이었고, 1983 년에 영국은 정식으로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다. 그래서 방커힐에는 큰 모뉴먼트가 서있고, 매년 큰 행사를 한다.



마지막 날에는 헬리팩스에 도착했고, 여기는 그 당시에는 영국 패잔병과 미국에서온 피난민들이 북적이던 도시였지만, 이젠 배를만드는 산업과 건축목재를 수출하는 부촌이다. 인구는 40 만인데 영어가 주 언어고, 불어, 아랍어가 많이 쓰이고 모든종교가 있는 큰 도시로 변해가고있다. 폐기항만에 우리가 갔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하나 둘 짝고, 도망나왔다. 그다음에 간데는 무덤공원이었다. 세월호가 아니고 1912 년 4 월에 타이타닉배가 침몰한후 건진 160 명의 시체를 안치한 무덤이다. 한국에도 세월호무덤공원이 있겠지?



배의 앞대가리처럼 진열된 무덤인데, 오른쪽에 한 줄, 중간에 한 줄씩 무덤이 진열되었고 4 명의 애들도 묻여있었다. 그중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연주하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안장되어있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왼쪽 선은 텅비워있는데 그이유는, 사고가 나서 배가 그 큰 빙하를 박을 때 선장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배를 틀어버리고 해서 왼쪽 부분의 배를 파괴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 침몰했다. 그래서 왼쪽 줄은 무덤을 안 세웠단다. 만약에 선장이 빙하를 정면으로 박았으면 앞쪽은 파괴되지만 방마다 방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어서, 침몰은 절대 안했을거라고 한다. 선장의 잘못을 용서 못하는 셈이다.





마지막 밤은 풍선을 천장에서 떨어뜨리며, 왈츠를 추며 내년에도 다시 여행을 하기로 다짐하며
약속했다. 71년 동기들아, 같이가자. 50년기념이네, 60년기념이네 하지말고, 매년 기념식 하자.

그제.

